

원두값 급등에 '눈치싸움'... 속타는 커피업계



국내 커피 원두 수입액은 13억2783만 달러(1조9000억 원)로 전년(9억681만 달러) 동기 대비 46.4% 증가했다. 연합뉴스

작황 부진·관세 폭탄에 국제 시세 쑥... 환율까지 뛰어서 경쟁 치열한데 선불리 값 올렸다면 후폭풍 우려 업계, 일단 재고로 버티기... 이르면 연말 값 인상할 듯

프랜차이즈 커피업계가 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국제 원두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저가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선불리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수익과 소비자 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눈치 게임'에 돌입했다. 23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커피 원두 수입액은 13억2783만 달러(1조9000억 원)로 전년(9억681만 달러) 동기 대비 46.4%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입액(12억4304만 달러)1조77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량이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수입액이 급증한 것은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BOT) 기준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t당 8951.78달러로 전월 대비 10.5%, 연초 대비 24.2% 상승했다. 올해 평균 원두 가격은 t당

8537.9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1.47달러)보다 50% 이상 급등했다. 반면 3분기까지의 수입량은 15만8777t으로 전년(15만4457t) 대비 2.8% 증가에 그쳤다. 업계는 원두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환율 요인을 꼽는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은 장기 가뭄과 이상 고온으로 작황이 크게 줄었고, 베트남-인도네시아 역시 폭우 피해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미국이 브라질산 원두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됐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수입단가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처럼 원재료비가 급등하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원두는 커피 한 잔 제조원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아메리카노 기준 원두값이 50~60% 오르면 전체 제조원가도 수십% 상승한다. 그럼에도 업계는 "한 잔당 100~200원만 올려도 소비

자 반발이 크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폴바셋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했다.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등 저가 브랜드도 인건비·임대료·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했으며, 인스턴트 커피 제조사 동서식품 역시 6월 제품 가격을 6개월 만에 올렸다. 그러나 '가성비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부분 브랜드는 여전히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커피값 인상 릴레이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원두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8~11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한다. 업계가 3~6개월치 원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두값 급등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만큼 원두 품질 강화나 디저트 결합, 브랜드 경험 확대 등 부가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엔비디아 손잡은 엔씨지포스 행사 시연사로

엔씨소프트 신작 신더시티. 엔씨소프트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진행 중인 엔씨소프트(엔씨)가 엔씨소프트의 그래픽 카드 브랜드 '지포스'의 한국 서비스 25주년 행사 시연사로 참여한다. 엔씨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의 게임 시연사로 단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엔씨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유일한 게임 시연사로 참여한다. 페스티벌 방문자는 신작 '아이온2'와 '신더시티'의 최신 빌드를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다. 아이온2는 11월19일 한국과 대만에 출시하는 엔씨 차세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신작이다. 뛰어난 그래픽과 방대한 PvE 콘텐츠가 특징이다. 엔씨는 문장을 한 달 앞두고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최초로 게이머에게 최신 버전 플레이 기회를 제공한다. 엔씨(NC)와 엔비디아는 다방면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독일 쾰른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임스컴' 행사에서 신더시티를 RTX 플래그십 타이틀로 공개했다. 신더시티는 엔씨의 오픈월드 액티컬 슈터 장르 신작으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혁신 그래픽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이다.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은 엔비디아가 한국에서의 지포스 사업 25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행사다. 엔비디아는 최신 지포스 RTX 기술을 공개하고 게임 시연·e스포츠 경기·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저녁 7시부터 메인 무대에서 이윤열·홍진호 등이 참여하는 'e스포츠 레전드 매치'가 진행되며 르세라핌·K-타이거즈 등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지포스와 관련된 추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는 특별 미션을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지포스 RTX 5090 파운더스 에디션을 증정한다. 영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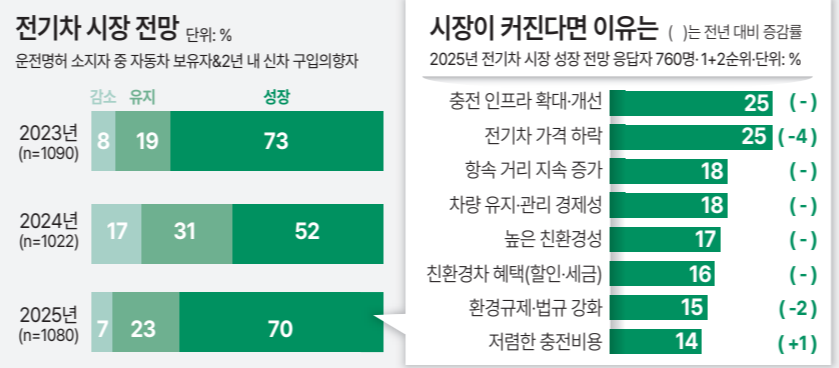
4명 중 1명 '전기차 포비아'... "10년 뒤에도 절대 안 사"

응답자 70% "시장 성장할 것"... 충전 인프라 개선 등에 희망적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 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연례 전기차 기회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전기차 시장 전망과 구입 의향을 묻고 그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동차 보유자와 2년 내 구입 의향자 1080명을 지역별·성별로 할당 표집한 표본으로 전기차 보유자(35명)와 2년 내 구입의향

자(90명)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응답자의 70%는 향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였고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였다. '유지'와 '감소' 응답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8%p와 10%p 줄었고 성장 전망이 18%p 증가했다. 2023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퍼지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성장 전망이 52%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그 충격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소비자 전기차 시장 전망



회복되는 추세다. 성장을 전망한 소비자가 꼽은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충전 인프라 확대 개선'과 '전기차 가격 하락'이 각각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속거리 지속 증가'와 '유지·관리 경제성' 등이 10% 후반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의 고질적 문제인 충전·항속거리 개선과 가격 부담 완

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응답자 중 현재 전기차를 보유한 사람은 3%였고 '2년 이내' 구입 의향자는 8%로 나타났다. 3~5년 내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였고 6~10년 내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로 중장기적 구입 고려층도 두터웠다. 주목할 부분은 '10년 후에도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5%에 달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33%)보다는 감소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안전성이 떨어져서'가 45%로 제일 많았다. 지난해 조사(60%)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다음 이유인 '차량 가격이 비싸서(25%)'의 2배에 가까웠다. 이 외에 △충전 인프라 부족 △AS에 대한 우려 △성능 검증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영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지음
ACBB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케'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 칼럼니스트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